

우리나라 젓소들의 평균산차는 2.5산으로 생애수명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 젓소가 돈을 벌어주는 시기는 0.5산에 불과하다. 통계자료로 우리나라의 검정성적이 세계 4위에 위치에 있다고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실은 없는 실정이다.

가축개량에 희망과 미래가 있다



김희동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장

살아있는 가축과 생활하는 직업으로 진실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고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축산가족에게 먼저 밝히고 권두언을 쓰고자 한다.

무(無)에서 정동목장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진실을 믿고 가축을 사랑하고 한가족 같이 생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축산을 공장에서 기계를 생산하는 업종처럼 사료만 주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희망 없는 목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체계적인 종축개량 실천 없이는 축산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한다.

현재의 축산위치는 농업소득에 4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발전하고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피부로 느끼는 실질 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소득대비 생산비용이 높고 두당 생산비가 아직까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젓소들의 평균산차는 2.5산으로 생애수명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 젓소가 돈을 벌어주는 시기는 0.5산에 불과하다. 통계자료로 우리나라의 검정성적이 세계 4위에 위치에 있다고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실은 없는 실정이다.

“검정을 위한 검정이 아닌 개량을 위한 검정이 되어야 한다.” 남들이 검정사업에 참여하니깐! 단순히 샘플을 채취하고 체세포를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서 목장을 진단하고 개량에 활용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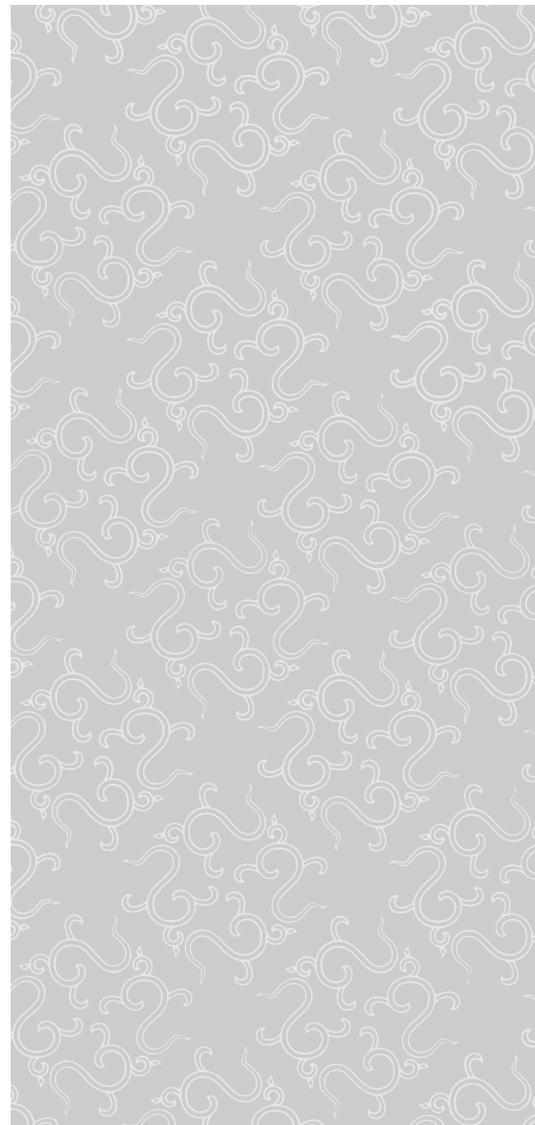
이처럼 짧은 경제수명을 연장하고 순수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축개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능력이 우수하고 생애수명이 길고 생산성이 높은 개체를 하루 속히 확보하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가축개량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철저한 혈통관리를 통하여 개량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정확한 유전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가 시킬수 있는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과 브랜드사업 등이 밑거름 역할을 해야한다.

둘째는 경제수명, 생애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모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외모심사를 통하여 각 개체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선발과 도태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계획교배용 종모우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즉, 외모와 능력이 비례함을 농가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셋째는 검정사업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아래 1996년 전국최고의 지역 검정회인 포천검정회를 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발족시켰으며, 2007년 2월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 4기 회장을 맡게된 계기가 되었다.



지역품평회가 활성화되어 입상축이 중앙 대회인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 출전 함으로써 품평회의 위상과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개량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파급 시켜야한다.

“검정을 위한 검정이 아닌 개량을 위한 검정이 되어야 한다.”
남들이 검정사업에 참여하니까! 단순히 샘플을 채취하고 체세포를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서 목장을 진단하고 개량에 활용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는 가축 품평회의 활성화이다. 일부 개량 농가들의 행사가 아닌 전체 축산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행사로 확대해야 하며 개량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축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품평회가 활성화되어 입상축이 중앙대회인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 출전 함으로써 품평회의 위상과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개량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파급 시켜야한다.

이러한 개량사업과 품평회 행사 등이 활성화되고 내실화 되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고, 가축개량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제15~16회 준비 위원장을 맡았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낀점은 개량농가들의 의식이 점차 선진화되고 대회수준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과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선진 축산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이었다.

축산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철저한 가축개량을 실시하여 우수축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실시한다면 우리축산의 미래는 희망이 가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